



즉시 배포용: 2020년 10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외 지역의 이동자가 14일 의무 격리를 "검사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 발표

이동자는 뉴욕 도착 3일 전 검사를 받고 도착 후 최소 3일 격리를 실시하며 4일째 되는 날 다시 검사

만약 이동자가 격리 4일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음성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격리 중단 가능

뉴욕과 인접한 주에 대한 격리 프로토콜 면제 및 필수 근로자 격리 면제는 계속 유효

뉴욕주 이외 지역에서 체류한 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격리 의무는 없지만 복귀 4일차 반드시 검사 실시

여행 권고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이동자가 반드시 뉴욕주 도착 시점에 이동자 보건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조항은 계속 유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바깥 지역에서 뉴욕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14일 의무 격리 기간을 "검사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과 인접한 주에서 온 이동자들은 여행 권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반드시 [이동자 보건 신고서\(Traveler Health Form\)](#) 작성 요건을 계속 적용됩니다. 필수 근로자에 대한 면제도 계속 적용됩니다. 새로운 프로토콜은 11월 4일 수요일부터 유효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라는 배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확진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으며 뉴욕 주민들은 이러한 성과를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동이 문제입니다. 나머지 주들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운 계획을 실시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검사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리 대상지 목록을 폐지하고, 미국 전역에 대하여 한 가지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과학에 의존하여 바이러스 상송세를 억제했으며, 우리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이러한 접근법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뉴욕주와 인접한 주를 제외하고 뉴욕주 바깥 지역에서 온 이동자들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14일 의무 격리를 검사 통과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이상 뉴욕주 바깥 지역에 있었던 이동자:
 - 이동자는 해당 주에서 출발 전 3일 이내에 검사 실시.
 - 이동자 뉴욕 도착 후 반드시 3일 동안 격리.
 - 검역 4일째, 이동자에 대해 다시 코로나 검사 실시. 두 가지 검사 결과 모두가 음성일 경우, 이동자는 두 번째 검사 결과를 확인한 시점부터 조기에 격리 종료 가능.

- 24시간 미만 뉴욕주 바깥에 있었던 이동자:
 - 이동자는 다른 주에서 뉴욕으로 이동하기 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뉴욕주 도착 시 격리 불필요.
 - 그러나 이동자는 뉴욕주에 입국할 때 이동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뉴욕 도착 4일차 코로나 검사 실시.

지방 보건부는 필요할 경우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만약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분리 명령을 내리고 접촉자 추적을 실시합니다. 지역 보건부는 반드시 이동자의 출발지인 주정부에 통지하여 그곳에서도 접촉자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이동자는 뉴욕주의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뉴욕주 도착 시점에 반드시 이동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